



## 경기동향(5월3주) - 국면 전환에 대한 조금의 대비

### Weekly Short Comment - 좋을수록 조금은 냉철하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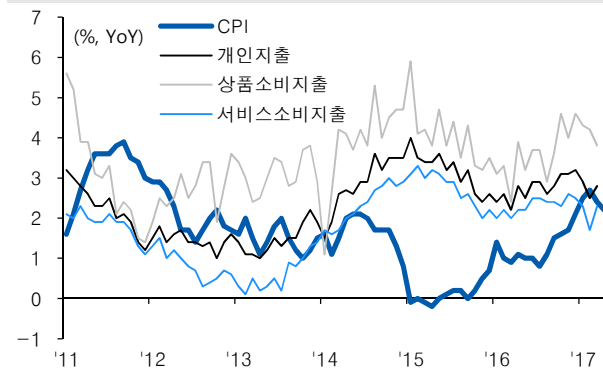
글로벌 경기모멘텀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며, 지난 2015년과 2016년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. 연초부터 여러가지의 불확실성이 하나씩 완화되고 확인되는 과정에 진입하였으며, 특히 유로존의 정치리스크도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된다. 전세계 경기동향에서는 완전한 상승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.

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미국의 소비경기인 것으로 생각된다. 아직 급격한 부진을 언급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. 여전히 심리지표들은 지난 십수년간 최고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볼 때, 급격한 부진을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. 다만 개인소비지출 둔화의 주 요인이 서비스보다는 상품소비였던 만큼 경제의 회전속도는 꾸준할 것으로 생각된다.

### 경제지표 다시보기(5/15~5/19) - 중국은 일시적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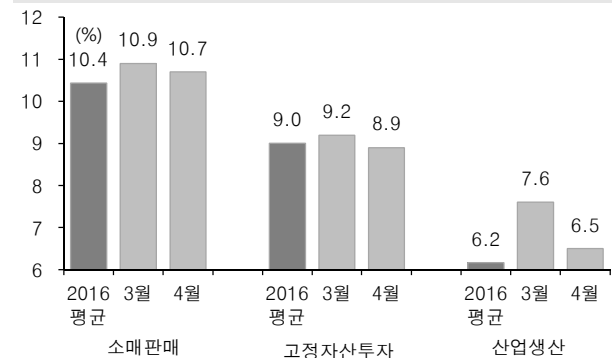
금주에 발표된 주요 지표 중 중국 지표의 일시적 둔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10.9%의 성장이 이루어졌고, 컨센서스 역시 10.9%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10.7%의 증가에 그쳐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였다. 광공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 역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진을 기록하였다(광공업생산 3월 7.6% -> 4월 6.5%, 고정자산투자 3월 9.2% -> 4월 8.9%). 그렇지만 최근의 평균적인 증감율 수준을 감안할 때, 큰 부진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, 중국경제의 안정에 대한 확신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볼 때, 큰 우려가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.

최근의 미국 개인소비지출이 둔화된 요인은 상품소비의 감소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최근 평균치를 볼 때 지금의 중국 실물지표는 일시적 부진으로 해석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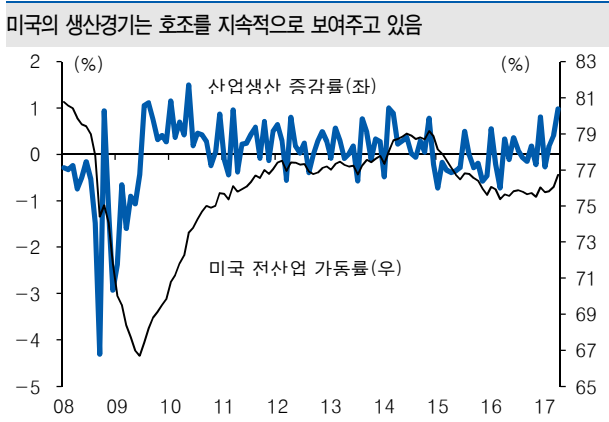
Weekly Macro

한편 미국의 생산경기는 여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. 설비가동률은 전월 대비 0.7%p 가 상승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으며, 산업생산 역시 전월대비 +1.0%가 상승한 실적으로 보여주었다. 살짝 정체된 느낌이 드는 소비지표와는 다르게 생산지표들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르게 온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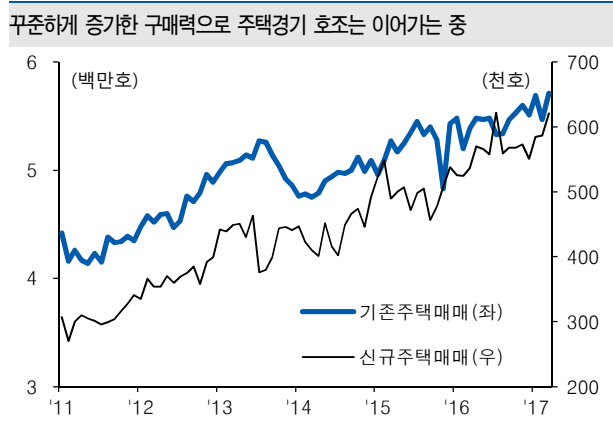
경제지표 미리보기(5/22~5/26) – 주요국 제조업 PMI 확인

다음주에 발표될 주요 지표로 주요국의 PMI 지표를 볼 필요가 있다. 전반적으로 기준점인 50pt를 상회하는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가운데, 미국의 심리지표들이 최근들에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감안한다면, 금번의 지수 확인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된다면 글로벌 경기확장에 대한 지속성에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 물론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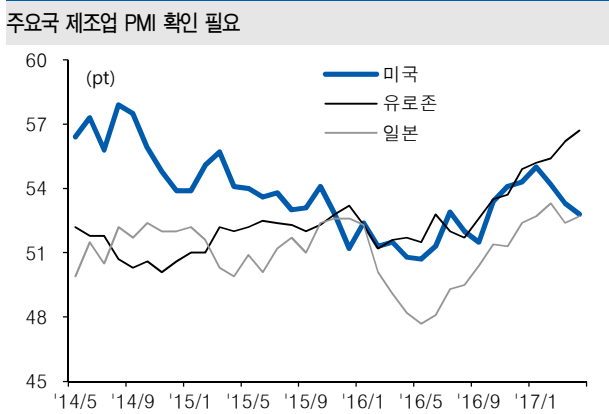
한편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다음주에 진행될 예정이다. 시장에서는 동결에 대한 비중이 높은 상황이며, 정권 초기인 만큼 급진적인 정책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